



최찬영

(신진가축약품, 동물병원 원장)

더위 먹은 후의 돼지관리 포인트

금년 여름의 폭염과 가뭄은 50여년만의 기록을 경신하며 온 국민을 괴롭히더니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있다.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모두 태풍의 피해를 각오하고라도 비, 바람을 동반한 태풍을 기다렸던가?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는 가뭄과 폭염의 피해 상황과 함께 이러한 자연재해를 극복하려는 온 국민의 노력이 돋보인 한 해였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은 우리들이 좀 더 이러한 재해에 사전 대비가 철저했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이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일에 보다 철저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큰 경험을 얻었다고 믿어진다.

세계 무역고 12위, 과학기술력 세계 14위라는 우리나라에서 인공강우(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의 실험은 왜 못하는지?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더 큰 분발도 기대해 본다.

농림수산부에서 집계한 가뭄

과 폭염에 의한 축산농가의 피해 상황은 지난 7월 12일~7월 25일까지 전국적으로 폐사두수만 한우 28두, 젓소 89두, 돼지 6,568두, 닭 656,084두 등으로 70여만 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신고되었지만 실제로는 두, 세 배 이상의 피해가 있었으리라 추산된다.

대한양돈협회가 7월 25일까지 조사한 피해 상황은 전국에서 약 10,000두 이상의 돼지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 부진과 생산성 감소는 또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아무튼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각오를 새롭게 하여 더위에 지친 가축들을 보다 세심하게 돌봐주어 떨어진 생산성을 하루 빨리 정상 궤도로 올려 놓아야겠다.

금년 무더위로 양돈장에 가장 피해를 준 질병이 열사병과 일사병이다. 39~40℃의 폭염하에서 단열이 덜 된 돈사에 태양광선이 들어오고 복사열과 반

사열로 달구어진 축사, 환기 불량한 돈사, 불충분한 급수와 과밀 사육 등의 부적절한 관리가 되면 돼지의 체온이 위험한계(41.5~42.5℃)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돼지는 신진대사가 50%나 항진되어 단백질 대사가 촉진되고, 식욕부진으로 체중이 감소되며, 근력이 없어지고, 중추신경계의 활동이 억제되어서 호흡중추를 억압하여 헐떡 헐떡 가쁜 숨을 몰아 쉬게 된다. 또한 심한 탈수현상과 신경증상으로 경련과 마비를 일으켜 운동실조와 기립불능의 상태에 이르며, 입과 코에서 포말성 삼출물을 분비하며, 혼수상태에 빠져 결국은 호흡장애로 폐사하게 된다.

이러한 일사병과 열사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자면 우선 축사의 시설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건축되어야 한다. 축사 건축시나 개축시 단열과 보온에 신경을 쓰고 여름이 오기 전에 모돈 스톨과 분만돈사에는 점적식 관수장치를 설치해서 모돈의 목 부위에 시원한 물이 한방울씩 떨어지게 해주고, 축사에 그늘막을 설치해 주면 열사병과 일사병을 예방할 수 있다. 점적관수호스는 비닐하우스 농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농용자재 판매소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포장단위가 1km나 되어 조금씩은 잘 팔지 않으니 양돈협회 지부에서 공동구매하여 나누어 쓰면 될 것이다. 필자도 어느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3년전에 설치하여 올 여름 혹서에 대단한 효과를 보았다. 혹서 뒤편 혹한이 있다고 했으니, 올 겨울에는 매서운 추위가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축사 시설을 개축하거나 수리할 때 더위와 추위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하도록 당부한다.

다음은 더위 먹은 후의 모돈과 종돈의 관리 포인트로 우선 더위에 지친 종돈과 모돈의 상태를 일제 점검하여 야위고 체력, 근력이 떨어진 종돈과 모돈에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된 영양제를 약 1개월간 사료에 첨가해 보충, 급여해 주고 심한 것은 주사제와 병용해 주어야 한다.

둘째는, 무더위로 인해 종모돈의 활력이 약화되고, 조정기능이 떨어지고, 정자수가 감소되는 등 교미를 시켰어도 수태가 안되는 불임돈의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 모돈의 관리카드와 재발정 여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여 수태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활력이 떨어진 종모돈에게는 주기적으로 비타민 A, D, E제제와 대사촉진제를 주사해

주고 아침, 저녁 서늘한 때에 교배를 시키고 사료를 급여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모돈의 번식기능도 현저히 저하된다. 특히 무발정돈이 많아지며 발정재귀도 현저히 늦어진다. 설령 발정이 와서 교배를 시켰다 해도 재발정돈이 많아지며, 분만율과 산자수도 현저히 적어진다. 이것은 모돈의 모체콘디션이 무너져 호르몬분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 이러한 번식성적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돼지들이 여름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돈사의 청소를 더욱 깨끗이 해주고, 지붕의 단열재를 보강해 주며, 축사주변에 그늘이 지는 나무를 많이 심어주고, 타이머를 부착한 자동 환기장치의 설치와 점적관수장치와 그늘막의 설치 등 혹서에 대비한 사양시설이 되어 있으면 여름철의 번식성적은 현저히 개선될 수가 있다.

혹서는 또한 돼지의 발육과 사료효율을 떨어뜨리며 산육성과 육질저하의 최대 원인이기도 하므로, 여름철에는 육성 및 비육돈에게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첨가된 영양제를 추가로 공급해주어 무더위에 지친 돼지들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양돈경영의 지름길이다.